

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 영향 전망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설용진s.dragon@sks.co.kr
3773-861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환급 방안 검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환급 등 상생금융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2023 년 말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하여 차주 1인당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최대 1.5%)의 이자비용을 환급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업권 전체 약 2.25 조원 수준의 영향 예상

이번 상생금융의 대상이 되는 예금은행 기준 SOHO 대출 잔액은 2023년 10월 말 약 450 조원 수준에 달한다. 단순히 이번 상생금융의 영향을 파악해보기 위해 10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 신규대출액의 금리 구간별 비중을 SOHO 대출에 적용해보면 상생금융 정책이 적용되는 대출금리 5% 이상 SOHO 대출은 약 279 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금리 5%를 기준으로 최대 1.5%까지 이자비용을 환급해준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상 금액은 예금은행 전체 기준 약 2.25 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기준 약 3~4 천억원 수준의 비용 예상

전반적인 SOHO 대출 포트폴리오가 은행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전체 예금은행 SOHO 대출 잔액 대비 개별 은행 SOHO 대출 비중으로 각 은행에 비용을 배분할 경우 4개 시중은행 기준 약 2,600억원~4,400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기준 약 88 조원의 SOHO 대출을 보유한 KB 국민은행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66 조원), 하나(60 조원), 우리(52 조원) 순으로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전체 그룹 기준으로는 기존 추정치 대비 약 5~6% 수준의 당기순이익 하락이 나타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고려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

상생금융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1) 신용이 양호한 차주에 대한 모럴 해저드나 2)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출 금리로 인한 SOHO 신용공급 유인 축소 등 수반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더해 1) 근본적으로 국내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SOHO 대상 상생금융을 통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2) 코로나 19 를 거치며 가파르게 상승한 SOHO 대상 채무로 인한 부담 등도 예상된다.

1. SOHO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환급 방안 검토

(1)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 환급 등 상생금융 방안 논의

은행에 대한 사회적 역할 요구
가중. 횡재세 도입은 어려우나
상생금융 형태의 역할 요구 지속

최근 은행업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 추진되던 횡재세의 경우 1) 초과이익 기준의 모호함, 2) 이중 과세 이슈 등 제반 요인을 감안했을 때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상생금융 형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SOHO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환급 방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환급 형태의 은행업권 상생금융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2023 년 말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하여 차주 1 인당 대출 1 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 만원(최대 1.5%)의 이자비용을 환급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업권 상생금융 방안 논의 내용

분류	내용
예상 참여대상	- 시중은행 6 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씨티) - 지방은행 6 곳(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 인터넷은행 3 곳(카카오, 케이, 토스) - 특수은행 3 곳(농협, 수협, IBK) 산은, 수은 제외한 총 18 개 은행
지원 대상	대출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로 검토 - 부동산임대업 대출 제외
지원 규모	약 2 조원 수준으로 추산
지원 방식	납부한 이자에 대한 일부 환급(캐시백) 방안 검토
1 인당 환급액	대출 1 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 만원 (1.5%) 환급하는 방안 검토
은행별 배분	이익 및 대출금리 5% 초과하는 사업자대출 비중 고려하여 배분 계획

자료: 언론 보도, SK 증권

2. 시나리오 테스트: 업권 전체 약 2.25조원 수준의 영향 예상

(1) 10월 말 예금은행 SOHO 대출 등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전체
SOHO 대출 중 약 62%가
상생금융 타겟으로 추정

최근 논의되는 상생금융 방안에 따른 영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간단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수행해 보았다. 먼저 이번 상생금융의 대상이 되는 예금은행 기준 SOHO 대출 잔액의 경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450조원 수준에 달한다. 대출 금리별 비중 데이터는 단순히 10월 기준 전체 중소기업 신규대출액의 금리 구간별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며 이 경우 이번 상생금융 방안의 타겟이 되는 대출금리 5%를 상회하는 SOHO 대출은 약 279조원으로 전체 SOHO 대출의 약 62%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 전체 약 2.25조원의
영향 예상. 실제 구간별 비중,
부동산 임대 제외 등 고려 필요

적용된 대출금리의 경우 각 구간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가정했으며 12% 이상 대출의 경우 12%를 적용했다. 이자비용 환급액은 대출금리 5%를 기준으로 최대 1.5% 수준의 이자비용의 환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는데 이 경우 전체 예금은행 기준 이자비용 환급 금액은 약 2.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개별 차주당 대출 금액 등에 따른 영향 등은 제외했으며 그 외 SOHO 대출 잔액 기준 금리 구간별 비중의 차이 및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제외한 지원 방안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업권 상생금융 방안 관련 영향 추정

금리 구간	대출 비중	대출 잔액	적용 금리 가정	환급 기준 금리 가정	환급금액 추정
5% 미만	37.9	171			
5% 이상 ~ 6% 미만	43.2	194	5.5%	5.0%	0.97
6% 이상 ~ 7% 미만	14.6	66	6.5%	5.0%	0.99
7% 이상 ~ 8% 미만	2.7	12	7.5%	6.0%	0.18
8% 이상 ~ 9% 미만	0.9	4	8.5%	7.0%	0.06
9% 이상 ~ 10% 미만	0.4	2	9.5%	8.0%	0.03
10% 이상 ~ 11% 미만	0.2	1	10.5%	9.0%	0.01
11% 이상 ~ 12% 미만	0.0	0	11.5%	10.0%	0.00
12% 이상	0.1	0	12.0%	10.5%	0.01
총합	100	450			2.25

자료: SK증권 추정

주: 금리 구간은 2023년 10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신규취급액의 금리 구간별 비중을 사용

3. 시중은행 기준 약 3~4 천억원 수준의 비용 예상

(1) 그룹 당기순이익 기준 약 5~6% 수준의 영향 예상

단순 SOHO 대출 비중 기준으로
비용 배분할 경우 4개 시중은행
기준 약 1.3조원 비용 부담 예상

은행별 전체 SOHO 대출 포트폴리오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예금은행 SOHO 대출 대비 각 은행별 SOHO 대출 비중을 바탕으로 은행별 상생금융 비용 부담이 결정될 전망이다. 3Q23 기준 4개 시중은행의 SOHO 대출 합산이 약 265조원으로 전체 SOHO 대출 대비 약 59% 수준에 달함을 감안하면 총 약 1.3조원 수준의 상생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수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은행의 중/저신용 차주 비중 등을 감안했을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개별 은행 기준 약
2,600억원~4,400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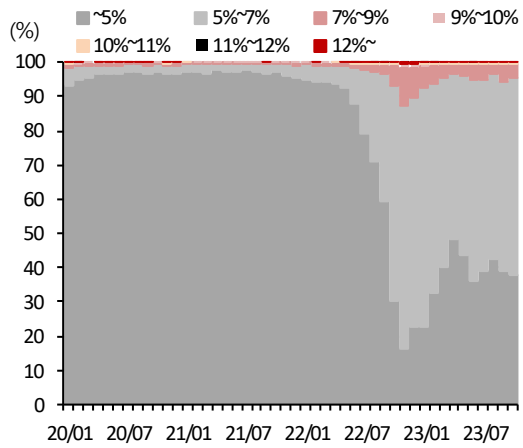
개별 은행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9월말 기준 약 88조원의 SOHO 대출을 보유한 KB국민은행이 약 4,4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이어 신한은행(66조원)이 약 3,300억원, 하나은행(60조원) 약 3,000억원, 우리은행(52조원) 약 2,600억원 수준의 상생금융 비용을 인식할 전망이다. 전체 그룹 기준으로는 기존 추정치 대비 약 5~6% 수준의 당기순이익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별 상생금융 비용 부담 예상 및 실적 영향 추정

(조원, %)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9월 말 기준 SOHO대출 잔액	88	66	60	52
전체 예금은행 SOHO대출 대비 비중	19.6%	14.6%	13.2%	11.5%
은행별 상생금융비용 배분액 추산 (A)	0.44	0.33	0.30	0.26
기존 2024E 그룹 기준 세전이익 추정 (B)	7.0	6.8	5.2	4.3
당기순이익 가정	5.2	5.0	3.8	3.2
상생금융 비용 반영시 2024E 그룹 기준 세전이익 (B-A)	6.6	6.5	4.9	4.0
상생금융 비용 적용시 당기순이익 가정(법인세를 동일하다고 가정)	4.9	4.8	3.6	3.0
상생금융 관련 당기순이익 감소 폭	-6%	-5%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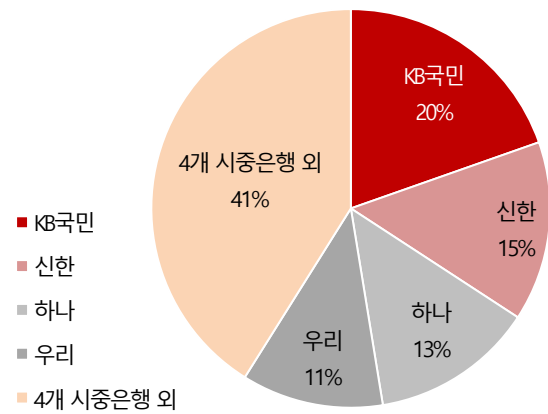
자료: 각사, SK증권 추정

중소기업 대출 신규취급액 - 금리 구간별 비중(10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SK 증권

SOHO 대출 - 은행별 비중 현황



자료: 한국은행, 각사, SK 증권

주: 4개 시중은행은 9월 말 기준, 전체 SOHO 대출은 10월 말 기준

4. 여전히 고려할 부분은 많을 것으로 판단

(1) 모럴 해저드, 신용공급 축소, 부채 관리 등 이슈 고려 필요

취지는 긍정적이거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 상존.

1) 모럴 해저드, 2) 신용 공급 축소

상생금융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 결정에 있어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신용이 양호한 차주의 경우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럴 해저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 입장에서도 SOHO 대출에 대한 적정 신용리스크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SOHO 대출에 대해 이전보다 강화된 대출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근본적으로 내수 경기의 유의미한
회복 필요. 코로나 19 이후 높아진
자영업자 부채비율 등 고려 필요

또한 이자비용 환급이 자영업자 등 차주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국내 내수경기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편이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 방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를 거치며 급격하게 증가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비율 등 종합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작성자(설용진)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3년 12월 12일 기준)

매수	93.92%	중립	6.08%	매도	0.00%
----	--------	----	-------	----	-------